

##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그 문화사적 맥락\*

서철원\*\*

— <차 례> —

1. 문제 제기
2. 최치원의 풍류 관념 - 포함삼교와 접화군생
3. 화랑단의 행적에 나타난 풍류의 제 양상
4. 맺음말

### <국문초록>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신라 화랑의 사상적 토양이었던 풍류가 ‘포함삼교(包  
含三教)’의 의미를 지니며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였다.  
‘접화군생’의 역할은 인재를 찾아 양성하는 화랑단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에 ‘포함삼교’는 현존 자료 가운데 『난랑비서』에서만 확인되는 용어  
이다. 이외는 달리 화랑단 설립 시기에 명주에 세웠던 비문에서는 유가 사상의 사  
각과 용어만을 통해 화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9세기 최치원이 생각했  
던 ‘포함삼교’와, 7세기 명주 비문의 유가 중심적 태도에는 거리가 있다. 이들의 차  
이를 유념하면서 풍류의 실천에 해당하는 화랑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여러 자료에  
서 풍류의 기능으로 나타났던 ‘유오산수(遊娛山水)’를 통한 인재 발굴은 ‘접화군  
생’의 역할과 통하는 국면이 있었다. 그러나 화랑의 활동 가운데 유가 윤리를 극단  
화하여 비장한 죽음에 집착했던 모습, 그리고 교(敎)와 교의 단선적 대응을 넘어선  
혼용을 시도했던 점 등은 『난랑비서』와 그 맥락은 같더라도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  
다. 한편 가악과 예술의 바탕으로서 풍류의 역할은 다른 자료에서의 비중과는 달  
리 최치원의 설명에서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최치원의 풍류 관념에 풍

\* 이 글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 90차 학술대회(2015.5.9.)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 토론을 통해 많은 조언을 베풀어 주신 정환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류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종래의 풍류 관념에서 신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던 그의 의도가 지닌 문화사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최치원, 풍류, 난랑비서, 화랑, 신라, 고대 한국문화

## 1. 문제 제기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화랑의 사상적 토양을 ‘풍류(風流)’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풍류는 ‘포함삼교(包含三敎)’의 의미와 ‘접화군생(接化羣生)’의 역할을 지녔다. 이렇게 큰 의미와 역할이 상정된 탓에, 풍류를 사라진 고유 사상 혹은 예술의 원리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치원을 신선사상 혹은 민족종교와 연결하는 시각)으로부터 풍류, 화랑에서 국가적 사상의 기저를 찾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고유사상 혹은 예술의 원리로서 풍류의 실존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난랑비서』의 서술이 풍류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서술한 것인지, 나아가 신라 문화사 전체에 걸쳐 풍류를 단일한 (혹은 유일한) 실체로 보아도 타당할지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치원의 풍류 관념이 신라 문화사 안에서 어떤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난랑비서』 자체는 현존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에서 화랑의 기원 및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용되었다. 계몽기의 한국학자들은 이에 주목하여 고유종교 혹은 신앙의 한 원리로서 풍류도라는 관념을 내세웠고, 김

1) 『해동이적』과 『해동전도록』, 『청학집』 등에서 최치원을 신선사상과 관련하여 중시하거나 언급했다.

정설은 화랑도와 일체화된 ‘풍류정신’<sup>2)</sup>이라는 실체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설의 ‘풍류정신’은 군사적 업적을 중심으로 화랑의 업적을 되새기고, 김시습과 최제우 등의 사상을 풍류 또는 풍류도라는 고유사상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의 국민윤리와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 왔으며,<sup>3)</sup> 민족혼 혹은 국가적 정신으로 풍류를 승화시키려는 동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풍류는 가창(歌唱), 미술에서 예술적 정취의 한 모습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 ‘국풍(國風)’으로서 풍류도 관련 용어가 문학사에서 활용된 사례를 추정<sup>4)</sup>하거나, 한국음악의 뿌리로서 화랑의 향가 가창과 풍월도의 단서에 주목<sup>5)</sup>하고, 화랑의 ‘유오산수(遊娛山水)’에 착안하여 정원의 공간적 심상과 풍류에까지 관심을 확장<sup>6)</sup>했다. 심지어 위진(魏晉)의 풍류와 화랑도 사이의 유사점을 거론한 성과<sup>7)</sup>에서는 ‘귀족 미청년들의 예술 활동’을 양자의 공통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풍류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심미적 영역에서 실천된 것으로, 산수에 대한 공간적 인식, 위진 문화에 대한 수용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두 관점은 모두 당시의 실상 뿐만 아니라 최치원이 구상했

- 2) 김정설, 『풍류정신』, 영남대 출판부, 2009(초판: 정음사, 1986), 14~17쪽.
- 3) 양근석, 「한민족의 풍류도와 화랑사상 연구」, 『국민윤리연구』 38,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 79~96쪽.
- 4) 윤영옥, 「풍류사상과 한국시가 - 신라의 풍류적 인간상」, 『정여윤영옥박사학술총서 10: 작가·작품론 편』, 민속원, 2011, 182~225쪽;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1, 한민족문화학회, 1996, 217~256쪽 참조.
- 5)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291~322쪽.
- 6) 권오만·고재희, 「한국 전통문화상 풍류활동의 전개」, 『선도문화』 17-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4, 381~414쪽.
- 7) 張伯偉, 「花郎道與魏晉風流關係之探討」, 『동방한문학』 13, 동방한문학회, 1997, 177~179쪽.

던 풍류의 역할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최치원에게 풍류가 ‘포함삼교’라는 넓은 범위를 갖춘 것이라면, 화랑의 무공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것만을 그 역할의 총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난랑비서』의 풍류를 ‘유오산수’를 비롯한 공간적 심상과 예술론에 직접 연결할 단서는 뚜렷하지 않다. ‘유오산수’는 『난랑비서』가 인용된 바로 앞 단락에서조차 화랑의 주요 역할로 중시했던 덕목이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곳곳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난랑비서』의 풍류론에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접화군생’의 효과를 여러 지역에서 거두기 위해 ‘유오산수’가 필요했으리라는 가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유오산수’는 예술론에서의 맥락이 아닌, 국토의 이곳저곳을 순례한다는 의미일 따름이다.

여기서는 최치원이 『난랑비서』를 분석하되, 그것이 인용된 맥락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록이 인용된 『삼국사기』·『신라본기』·『진흥왕』 37년 조의 화랑단 설립 관계 내용 전체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랑단 설립 관계 기록인 『삼국유사』·『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조의 기록을 볼 텐데, 『삼국유사』 쪽에는 『난랑비서』 대신 명주에 세웠던 비문의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포함삼교’가 아닌 유가의 용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화랑의 배경 사상에 대하여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바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화랑의 행적을 통해 이 차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라 문화사에서 풍류 관념이 단일한 실체였는지, 최치원의 풍류 관념은 그 안에서 어떤 맥락과 위치를 갖는지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 2. 최치원의 풍류 관념

### - 포함삼교(包含三敎)와 접화군생(接化羣生)

최치원이 풍류에 대하여 서술했던 「난랑비서」는 현존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신라본기·진흥왕」 37년 조의 화랑의 기원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요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의 [C]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은 풍류 자체의 서술에만 머물지 않고, 진흥왕 37년에 설립한 화랑단의 유래와 활동을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C]만을 보지 않고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A-1] 37년(576) 봄에 처음으로 源花를 받들었다.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다음에 발탁해 쓰고자 하여 마침내 미녀 두 사람 즉 南毛와 俊貞을 뽑고 무리 300여 명을 모았다.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에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지고 말았다.

[A-2] 그 후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화랑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드니,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 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노닐고 즐기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어, 착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B] 그러므로 김대문은 『花郎世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진 보필자와 충신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은 이로부터 생겼다.”

[C] 그리고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仙史』

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거니와, 실로 이는 三教를 포함하고 못 백성들과 接하여 교화한다. 이를테면 ㉔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司寇의 가르침이고, ㉕하였다고 자랑함이 없는 일[無爲之事]을 하고, 말없는 가르침[不言之教]을 행함은 주나라 柱史의 뜻이며, ㉖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함은 ㄷ乾太子의 교화이다.”

[D] 당나라 舍狐澄의 『新羅國記』에 말하였다.

“귀족의 자제 중 아름다운 이를 택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겼다.”

(이하 승려 안홍의 행적 및 진흥왕의 죽음 관련 기록)<sup>8)</sup>

먼저 [A]와 [D]는 화랑에게 화장을 시키고 미남자로 꾸미는 전통을 설명했는데, [D]에 비하면 [A]가 한결 자세하다. 이 가운데 [A-1]에서는 화랑의 아름다움이 본래는 여성미를 의식하여 유래한 것이었음을 설화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원화’를 받든 계기가 “인물을 알아볼 방법”을 찾는 것에 있었다고 서두에 제시하고, 화랑의 직능을 [A-2]에서 산과 물을 찾아 노닐며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착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A-1]과 [A-2]는 인재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인과관계를 띠고 있으며, 이는 [B]에서 김대문의 기록을 인용하며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화랑에서 유래했다는 평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요컨대 [C]의 앞뒤 문맥은 인재 천거 방법으로서 화랑의 기원과 운영, 화랑의 외모가 지닌 특성에 대하여 뚜렷한 인과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sup>9)</sup> 따라서 [C] 역시 그러한 문맥을 고려하여 살필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번역은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84~85쪽을 따랐으며, 이하 『삼국사기』 번역은 이 책을 따랐다.

9) [B]와 [C]는 『열전』 제7의 「김흠운」, 열전의 사론(史論)에 거의 동일하게 되풀이되며, 여기에 3대의 화랑이 200여 명이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3교를 포함하고[包含三教]” 뒤에 나오는 “못 백성들과 접하여 교화한대[接化羣生]”는 실천의 목적은 곧 인재를 찾아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3.1)에서 살펴볼 ‘유오산수’를 통해 인재를 발굴했던 화랑의 역할 역시 ‘접화군생’의 실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접화군생’은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화랑의 실제 활동 및 실천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포함삼교’는 [C] 이외의 [A], [B]와 [D] 가운데 어느 부분과도 문맥이 닿지 않는 것 같다. 이 표현이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여기서만 나온다는 점도 의미심장해 보인다. 따라서 ㉠~㉢의 ‘포함삼교’가 당시의 실제인지, 아니면 최치원 나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는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류의 기원이 『선사(仙史)』라는 책에 자세하다는 말이 곁들여지기는 했지만, ‘포함삼교’라는 표현이 『선사』에서 직접 인용된 것인지 문맥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그 책의 저자가 최치원인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碑)의 대상인 난랑을 높이기 위한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표현으로 간주하겠다.

『삼국사기』·『열전』(이하 『열전』)에 나타난 무사집단으로서 화랑의 역할에 주목했던 관점은 이 가운데 ㉠, 특히 충성심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의 [B]에서 충성심에 주목한 것이나, 『열전』의 김유신과 사다함, 관창 등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의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서술과는 온도 차가 꽤 있다. 『열전』의 충과 효는 ㉠에 비하면 비장하고 극단적이다. 예컨대 “신하로서는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모두 이루어진다.<sup>10)</sup>”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가에의 충성을 위해서라면 부모

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범하더라도, 충을 이루면 효가 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효를 충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태도는 ‘효제충신’을 두루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가의 본래 취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충효를 상하 관계에서의 일방적 복종 논리의 극단에까지 몰고 갔던<sup>11)</sup> 옛 위정자들의 구미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최치원은 효를 가족 윤리로, 충을 사회 윤리로 대칭함으로써 유가 윤리의 두 축을 설명하고, 그것을 풍류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열전』에서는 전쟁 상황 속에서 충만이 강조되고 효는 무시되는 모습을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풍류 관념은 앞선 시대에서 부정되었던 요소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셈이며, 적어도 『열전』에서의 충은 풍류에 포함되었던 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유가에 대한 서술이 효와 충이라는 근본적인 쪽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와 ㉡의 도가 그리고 불가 관련 서술은 해당 사상 자체의 이론적 깊이만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 대신 적극적 실천과 선행이라는 보편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도가의 정수는 무위론에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무위론 자체가 더욱 크고 넓은 의미의 역설적, 긍정적 실천을 담보하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테지만, ㉢에서는 그 어구의 함축성을 풀이하는 대신 “無爲之事, 不言之教”를 서로 연결하여 말보다 앞서서 실천이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불가에 해당하는 ㉣는 이런 특성이 더욱 짙는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이라 불가만의 특징을 보여준다기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sup>12)</sup>

10) 『삼국사기』 권 47, 『열전』 제7, 김영운(정구복 외, 앞의 책, 798쪽).

11) 김충열, 『김충열교수의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1994, 26~33쪽 참조.

12) 3장에서 살펴졌지만 주 15)에 해당하는 인용문을 참조하면, 여기서 명주에 세웠다는 비문은 『난랑비서』의 ㉠와 ㉡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와 관련하여 굳이 불가를 언급하지 않았고 화랑도와 유가만을 연결한 편에 가깝다.



정리하면 도가와 불가는 윤리적 실천 요소만으로 풍류의 한 부분이 되고 있을 따름이다. 무위자연, 미륵과 정토, 여래장 등 당시 사상사에서 쟁점이 되었고 최치원 역시 알고 있었을 요소들은 거론되지 않았다. 최치원의 도·불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그는 신선사상의 비조로 일컬어지고 신선이 됐다는 전설을 남기기도 했던 인물이며, 『사산비명』을 비롯한 불가 관계 저술을 여럿 남겼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보기에, 도가와 불가가 지닌 탈속적, 이론적 측면을 내세우는 것은 도가와 불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았다.<sup>13)</sup> 그리하여 도·불가에도 유가 못지않은 실천적 요소가 있고 그것은 풍류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말보다 앞서 는 실천, 권선징악이라는 윤리 일반의 덕성을 내세웠다.

또한 종래의 관점에 따르면, 특히 ‘무불습합(巫佛習合)’이라는 매우 유용했던 문화사적 전체에 따르면 고유의 무속 혹은 신선신앙이 불가의 내재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포함삼교’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최치원 나름의 설명 방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 유행하거나 힘을 얻어가던 도가 혹은 불가는 중국과 인도에서 유래한 그것 그대로가 아니라, 신라 문화 나름의 내재화와 변용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설명 말이다. 그러나 신라 문화 나름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론과 용어에 의존하지 않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 고민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도·불 본연의 것이라기에는 다소 미묘한 실천성의 강조와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도·불과 관련한 ‘포함삼교’는 이러한 최치원의 의도 혹은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었다.

이에 비하면 유가 관련 서술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를 유

---

『난랑비서』와는 달리 유사한 표현이 3교 전체가 아닌 유가에 한정하여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13) 이와 관련하여 최치원이 ‘仙’을 풍류와 직접 연결하지 않은 점도 의미심장하다.

학자로서 최치원의 의식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도 있지만, 7세기 무렵부터 신라의 금석문에서는 국왕과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유가적 이상형에 가깝게 묘사,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었다.<sup>14)</sup>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삼국유사』에 소개된 명주 비문에서 이미 유가 중심의 시각에서 화랑단의 효용을 기대했던 전례가 있었다.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왕은 또다시 영을 내렸다. 양가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그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 했다.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다. 그래서 溟州에 비를 세우고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고쳐 착한 일을 하게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五常, 六藝와 三師, 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sup>15)</sup>

이 기록이 풍류 관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첫줄에 일단 ‘풍월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풍월’과 ‘풍류’는 혼용되면서 화랑단과 관련하여 곳곳에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에는 화랑단의 명부를 『풍류황권』이라 부른 사례<sup>16)</sup>가 있으며, 『삼국사기』에서 화랑단을 “풍월의 뜰[風月之庭]”이라 했던 적<sup>17)</sup>도 있다. 따라서 이 글 역시 화랑단의 설립 근거로서 풍류에 대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살핀 『난랑비서』는 화랑의 위상이 쇠퇴한 후대의 것으로

14) 김홍규, 「정복자와 수호자 - 5~7세기 한국사의 왕립 금석문과 왕권의 수사」,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013, 358~382쪽;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93~97쪽.

15) 『삼국유사』 제4 탐상,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1992, 233~234쪽).

16) 『삼국유사』 기이 제2, 효소왕대 죽지랑. 『삼국유사』의 번역은(박성봉·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2)에 따른다.

17)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검군(정구복 외, 앞의 책, 814쪽).

서 개인적, 사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여기 소개된 명주의 비문은 그 당시의 국가적, 공식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었다. 밑줄 친 부분은 『난랑비서』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가령 ‘악한 것을 고쳐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불가를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하였으며, 도가와 관계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유가적 덕목과 강상 윤리를 한결 더 구체적으로, 유가의 용어를 통해 직접 제시하였다. 요컨대 『난랑비서』와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풍류의 실천적 요소를 열거하고 있지만, 도가와 불가를 배제하고 유가만을 토대 삼은 것이다. 또한 충효와 권선 대신 강상(綱常)이 표면에 드러나 있어 그 지향점도 다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비문은 9세기의 최치원보다 앞선, 7세기의 화랑단 조직 당시의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이 풍월도, 곧 화랑의 풍류를 유가의 용어와 구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1회적 사건이 아니라 7세기 무렵 비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가 지향성<sup>18)</sup>과 연계하여 이해할 문제이다. 최치원의 시각 역시 풍류의 유가적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하의 복종 윤리보다는 가족과 사회 각각의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유가뿐만이 아닌 도·불의 실천적, 윤리적 요소를 함께 존중하고자 했다. 최치원의 풍류 관념은 7세기 무렵의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 차이를 빚어낸 도가, 불가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문제이다. 이들이 본래 풍류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7세기 무렵 약화되고 다시 9세기의 최치원에 의해 재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애초에는 없었던 요소가 최치원에 의해 발명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최치원이 도가적 요소로 내세웠던 자랑 없는 일과 말 없는 가르침, 불가적 요소로 주장했던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등은 굳이 도가와 불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긍정될 만한 덕성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풍류의 실천

18) 주 14) 참조.

으로서 화랑의 행적에 도가, 불가 나아가 유가적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치원의 풍류 관념이 재발견인지 발명인지 여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 3. 화랑단의 행적에 나타난 풍류의 제 양상

도가와 불가 나아가 유가와 관련한 요소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화랑과 낭도, 승려낭도들의 행적을 통해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똑같이’ 드러나는지는 더 확인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화랑단의 행적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려 한다. 해당 자료들은 『삼국사기』에서 화랑단의 설립 목적이었던 인재 천거의 실상, 『열전』에서의 충(忠)이 극단화한 방향, ‘포함삼교’와 직접 관계된 교와 교 사이의 교섭 혹은 혼용의 양상, 그리고 최치원은 다루지 않았지만 『삼국유사』에서 비중 있게 등장했던 가악과 예술론의 토대로서 풍류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 1) ‘유오산수(遊娛山水)’를 통한 인재 발굴
- 2) 유가 윤리의 극단화 경향
- 3) 교(敎)와 교의 교섭 혹은 혼용
- 4) 예술론으로서 풍류의 본질

1)로는 진흥왕 37년 조의 [A]와 [B]에서 제기되었던 인재를 찾는 모습과 관계된 일화들이 있다. 『삼국유사』·『효선』 편의 『빈녀양모』에서 효종랑의 부하 낭도가 효녀를 찾아 도와주는 일이나, 『삼국유사』·『기이』 편의 『48대 경문대왕』에서 응림이 겸손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미덕을 갖춘 사람을 찾아 표창하고 본받는 경우도 있지만, 『삼국유사』·『탐상』 편의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에서는 호랑과 미륵신앙의 상징이 되어줄 인물을 모셔오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유오산수’라는 행동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모든 시기에 걸쳐 풍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다. 최치원이 제시했던 ‘접화군생’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다음으로 2)는 3교 가운데 유가의 충을 극단화, 절대화한 사례이다. 흥미로운 점은 도가와 불가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상과 교섭, 혼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유가는 『삼국사기』·『열전』이라는 문헌의 지향점 탓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2장에서 [C]의 ㉔를 먼저 살펴면서 밝혔듯이 죽음을 무릅쓰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열전』 가운데 『검군』을 보면 “죽어야 할 바가 아닌데 죽은” 결과까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의(義)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후대 문헌 편찬자의 의식지향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신라인의 죽음에 대한 독특한 미의식은 이러한 유가 윤리의 극단적 해석과도 관계가 있다. ‘충’이라는 윤리가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최치원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최치원의 충이 가족적 의미의 효와 대칭되는 사회적 것이었다면, 여기서의 충은 죽음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의와 결과적으로 겹쳐 있다는 차이를 지닌다.

1)의 유형은 『삼국유사』에, 2)의 유형은 『삼국사기』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 3)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열전』의 『김유신』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가풍의 신비한 존재에게 도움을 얻는 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의해』 편 『이혜동진』에서는 도가적으로 윤색된 듯한 승려(전직 낭도)의 활동이 드러나 있다. 유가와 도가, 도가와 불가 사이의 조화가 보인 만큼, 유가와 불가 또는

3교 전체의 공존 역시 떠올릴 만하다. 그러나 최치원의 구상은 유가의 일부 분, 도·불의 일부분을 풍류와 1:1로 대응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이었다면, 이들 설화에서는 1:1대응이라는 단선적 병렬보다는 사상과 사상이 그 자체로 교섭, 혼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도·불은 말없는 실천, 권선징악이 아닌 신비한 존재와 그 도움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도·불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최치원이 강조했던 지점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 있다.

끝으로 4)는 예약이 지닌 신비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치원이 구상한 사상으로서의 풍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가약을 통한 풍류의 작용이야말로 3교의 모든 요소에 걸친 것이기도 하였다.

#### 1) ‘유오산수(遊娛山水)’를 통한 인재 발굴

화랑의 ‘유오산수’는 국토와 풍속에 대한 지리적 관심의 발현이기도 했지만, 인재를 찾거나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본받을 이를 찾아 배우는 여러 가지 역할을 두루 포함한 것이었다. 풍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유·도·불 각각과 관련된 사례가 모두 있었다. 우선 유가의孝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다.

효종랑이 남산의 포석정에서 노닐고재[遊] 하니 문객들은 모두 달려 왔으나 두 사람이 뒤늦게 왔다.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묻자 그들이 대답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20세 가량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먼 어머니를 껴안았는데 서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중략: 어떤 여인이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종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더 좋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졌다는 사연) 그러자 여인은 자신이 다만 어머니의 口腹의 봉양만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함을 탄식하여 서로

껴안고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구경하느라 늦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효종량은 측은하여 곡식 1백곡을 보냈다. 낭의 양친도 옷 한 벌을 보냈으며, 수많은 낭들도 조 1천석을 거두어 보내 주었다. 왕에게 이 일이 알려지자, 진성왕은 곡식 5백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군사를 보내어 그 집을 호위하여 도둑을 막게 했다. 또 그 방리를 표창해서 효양리라 했다. 그 뒤에 그 집을 회사해서 절로 삼고 양존사라 했다.<sup>19)</sup>

효종량이 남산 포석정에서 벌인 활동은 유흥으로서의 놀이라기보다는 화랑이 ‘유오산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화랑단의 선행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갖추어졌는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연을 듣고 낭도들과 친족, 임금까지 동참하여 도와주는 모습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부기된 점을 보면, 이런 선행이 우연하게 1회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구복의 봉양과 색양(色養)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유가 윤리로서 효의 개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보여준다. 따라서 ‘유오산수’의 관습이 유가 윤리의 실현 매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접화군생’의 효과에 이를 만한 단서를 보여준다. 굳이 효녀의 집을 절로 만들었다는 후일담이 부연된 점은 『삼국유사』라는 문헌의 성격상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음 자료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 교훈을 얻었다는 사례인데, 이 겸손은 도가에서 말하는 수덕(水德)을 떠올리게 한다.

왕의 이름은 웅림이다. 나이 18세에 국선이 되었으며, 약관에 이르자 현안 대왕이 그를 불러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물었다. “낭은 국선이 되어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본 건 없는가?” / “신은 행실이 아름다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 “그 말을 나에게 들려주게.”

19) 『삼국유사』 효선 제9, 빈녀양모(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1992, 382~383쪽).

“남의 뒷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이가 그 하나요,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은 검소하게 하는 사람이 들어요, 본래부터 귀하고 세력이 있는데도 그 위력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그 셋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들의 어짐을 깨닫고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낭의 巾櫛을 들게 하겠네.” 낭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후략)<sup>20)</sup>

응림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아름다운 행실은 곧 겸손이었다. 높고 귀하고 부유하지만, 낮고 천하고 검소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현안왕이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였다. 이들은 『도덕경』 8장과 34장에 나오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의 덕을 닮았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니 거의 도에 가깝다.<sup>21)</sup>

큰 도는 넓어서 이쪽저쪽 어디에나 있다. 만물이 기대어 살더라도 사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만물을 길러내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고, 늘 욕심이 없기에 작다고 할 수 있다. 만물이 모여도 주인 노릇하지 않으니,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끝내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기에 그 크음을 이룰 수 있다.<sup>22)</sup>

응림이 『도덕경』에 대한 독서 경험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고,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가 반드시 도가에만 연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 『삼국유사』 기이 제2, 48대 경문대왕(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1992, 127쪽).

21)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道德經』 8장).

22) 大道汎兮! 其可左右, 萬物恃之而生而不辭, 功成不名有. 衣養萬物, 而不爲主, 常無欲, 可名於小. 萬物歸焉, 而不爲主, 可名爲大.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 (『道德經』 34장).



이들 사이에 보이는 서술 방식의 유사점 이외에도, 이렇게 겸손한 이를 알아보는 안목이 부마가 될 요건이 되고 나아가 왕위에 오를 단서가 되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화는 왕으로서 응림, 후일의 경문왕이 지녔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당대의 보편 사상 가운데 하나였던 도가와와의 관련성도 유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여기서의 겸손은 물론 최치원이 강조했던 도가의 실천과 가르침에 포함된다.

끝으로 불가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반적인 의미의 ‘유오신수’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백제 땅으로 보이는 웅천<sup>24)</sup>으로 가 미륵의 화신인 국선을 모셔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화랑도와 불교의 결합은 ‘무불습합’이라는 주제로 많이 거론되기도 했고, 화랑단 소속의 ‘승려낭도’라는 존재를 설정<sup>25)</sup>하는 등의 흥미로운 가설을 낳기도 하였는데, 다음 이야기는 화랑과 미륵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진지왕 때에 와서 홍륜사의 중 진자가 언제나 堂의 주인인 미륵상 앞에 나가 발원하여 맹세를 했다. “우리 대성께서는 화랑으로 화해 이 세상에 나타나 내가 항상 미륵불의 얼굴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을 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정성스러운 간절한 기원의 마음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니, 어느 날 밤 꿈속에 한 중이 나타나 말했다. “웅천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진자가 이 계시를 좇아 웅천에 갔지만 동자 한 사람

23) 인용하지 않은 후반부는, 범교사의 조언을 들은 응림이 이름답지 않은 첫째 공주를 혼인 상대로 선택함으로써 왕위도 계승하고 둘째 공주까지 얻으며 선왕 부부의 마음을 편케 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결말을 지닌 우화는 노장 계통의 저술에 다수 보이는 것이다.

24) ‘웅천’을 당시의 신라 영토에 해당하는, 현재의 합천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5) 김영태, 『승려낭도고-화랑도와 불교와의 관계』, 『불교학보』 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0, 255~274쪽.

류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66~87쪽.

외에는 만나지 못하여 실망했는데, 산신령이 이미 동자로 나타난 미륵선화를 만났음을 알려주고는 그 행적을 찾아나서는 내용) 그때 영묘사 동북쪽 길가 나무 밑에서 편안히 앉은 소년을 만났다. 화장을 갖추었는데 얼굴이 수려했다. 진자는 그를 보자 놀라며 말했다. “이분이 미륵선화다.” 이에 그는 나가서 물었다. “나의 집은 어디 있으며, 성은 누구신지 듣고 싶습니다.” / “내 이름은 미시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잃어 성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자는 그를 가마에 태워 들어가 왕께 보았다. 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 그는 화랑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였으며, 예의와 風教가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는 풍류를 세상에 빛내더니 7년이 되자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sup>26)</sup>

윗글에 따르면 화랑의 우두머리 국선은 웅천에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지고, 다시 경주에 나타난 미륵선화이다. ‘시(尸)’는 ‘력(力)’과 모양이 비슷하기에, 미시랑이라는 이름이 곧 미륵을 뜻한다는 설명도 첨언하고 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진흥왕의 화랑단 설립에 바로 이어서 서술되어 있어, 화랑단의 초기 역사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같은 자료에 나란히 소개된 명주 비문에서는 화랑단의 활동 원리를 유가의 용어에 의지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불가에서는 ‘미륵’이라는 나름의 상징물을 통해 그 유래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신라인들끼리도 풍류의 기원에 대하여 일치된 합의에 이를 수 없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포함삼교’는 최치원 나름대로 이끌어낸 이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을까?

아무튼 인재를 찾아 유람하는 화랑의 모습은 유가 윤리의 효, 도가적 성격의 지닌 겸손, 불가적 성격을 띤 미륵 등으로 다채롭게 나타나 있다. 효종랑이 목격한 효는 최치원이 구상했던 가족 윤리로서 효의 좋은 사례라 할

26) 『삼국유사』 제4 답사,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233~234쪽).

수 있으며, 응림량이 겪었던 겸손 역시 최치원이 생각했던 (비록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도가적 실천과 가르침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화랑의 기원을 미륵신앙에서 찾고자 했던 불교계의 시각은, 5상과 6례를 화랑단의 효과로서 기대했던 국가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치원의 시선과도 완전히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모두 ‘접화군생’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들 사례는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거의 같은 맥락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 2) 유가 윤리의 극단화 경향

3교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을 내세우는 사례는 주로 유가에서의 충, 의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열전』에 주로 나타난다. 이들은 죽음을 통한 충·의의 성취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효와 충을 위주로 했던 최치원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사다함과 관창을 비롯한 화랑의 죽음을 비롯하여, 앞서 거론했던 이른바 전란의 시대상에 따른 죽음의 미학에 가까운 양상이다.

태종대왕 7년 경신(660)에 당나라 고종이 대장군 소정방에게 명하여 백제를 치게 하였을 때 흠춘이 왕명을 받들어 장군 유신 등과 함께 정예 군사 5만을 이끌고 나갔다. 가을 7월 황산벌에 이르러 백제 장군 계백을 만나 싸움이 불리하여지자 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러 말하였다. “신하로서는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모두 이루어진다.” 반굴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적진에 들어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반굴의 아들 영운은 대대로 고관을 지낸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명예와 절개를 자부하였다. 신문대왕 때에 고구려의 남은 세력 悉伏이 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토벌을 명할 때에 영운을 黃衿暫幢의 步騎監으로 삼았다. (중략: 다른 장수들이 적의 기세가 떨어지길 기다리지는 계책을

세움) 오직 영운만이 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려하니 그 따르는 자가 말하였다. “지금 여러 장수들이 어찌 다 살기를 엿보는 사람으로 죽음을 아끼는 무리이겠습니까? 지난번 말을 수궁한 것은 장차 그 틈을 기다려 그 편함을 얻고자 함인데 그대가 홀로 곧바로 진격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옳바르지 못합니다.” 영운이 말하였다. “전쟁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예기에서 경계시킨 바요, 전진이 있을 뿐 후퇴가 없는 것은 병졸의 떳떳한 분수이다. 장부는 일에 임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무리를 좇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적진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 왕이 이를 듣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그런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없다. 그 의로운 공이 가상하다.” 하고는 벼슬과 상을 후하게 추증하였다.<sup>27)</sup>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효를 충에 종속된 가치로 파악했던 말은 여기서의 흠춘의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신라군은 계백의 군사보다 10배 정도 우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전세를 뒤집기 위해 청년들이 비장한 각오 속에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막연히 고귀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중략 이후 부분을 보면 다른 장수들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의 기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장기전을 준비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틀린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영운은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혼자만 죽지 않고, 다른 장수와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 뻔하다. 이 상황에서 적의 기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더라면 인명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다. 보덕성의 전황과 전세를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영운의 희생은 곧 자신과 가문의 명예와 절개를 위한 것이었다. 명예로운 충성이긴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난랑비서』의 충과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27)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김영운(정구복 외, 앞의 책, 797~798쪽).

반굴과 영윤의 충성은 가문에 영예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죽지 않아도 될 상황에 죽은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검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군은 자신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 죽었는데, 그 평결에서조차 “죽어야 할 바가 아닌데 죽었다”고 한다.

劔君은 大舍 仇文의 아들로 沙梁宮의 舍人이 되었다. 건복 44년 정해(진 평왕 49: 627)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여러 농작물을 말려 죽었으므로 다음 해의 봄으로부터 여름까지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자식을 팔아 끼니를 때웠다. 이때 궁중의 여러 사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창고의 곡식을 훔쳐 나누었는데 검군만이 홀로 받지 않았다. 여러 사인들이 말하기를 “못 사람이 모두 받았는데 그대만이 홀로 물리치니 어떤 이유에서인가? 만약 양이 적다고 여긴다면 청컨대 더 주겠다!” 하였다. 검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近郎의 門徒에 이름을 붙여 두고 화랑의 뜰[風月之庭]에서 수행하였다. 진실로 의로운 것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였다. 당시 이찬 大日의 아들이 화랑이 되어 근랑이라 불렀으므로 그렇게 말하였다. (중략: 다른 이들이 홀로 뇌물을 받지 않은 검군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검군은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내용) 검군이 말하기를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못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찌 도망가지 않는가?” 하니 “저들이 굶고 나는 곧은데 도리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모임 장소에 갔다. 여러 사인들이 술을 차려 놓고 사죄하였다. 물래 약을 음식에 섞었는데 검군이 이를 알고도 깨끗하게 먹고 죽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검군은 죽어야 할 바가 아닌데 죽었으니 태산을 기러기 털[鴻毛]보다 가벼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였다.<sup>28)</sup>

검군은 ‘風月之庭’에서 수행한 낭도였다. 이 설화는 죽음에 대한 독특

28)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검군(정구복 외, 앞의 책, 813~814쪽).

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를 지켜 고발하지 않고, 뗏뗏한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의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독약을 먹고 곳곳이 죽었다. 이렇게 융통성 없는 태도를 유가 윤리에서의 ‘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화랑의 낭도로서 검군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목숨은 지켜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게 될 계기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 역시 풍류의 한 실천이라면, 그 풍류는 최치원의 설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죽음 인식은 무사로서 화랑이 지니고 있었던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치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화랑을 제제로 한 향가 두 편에서도 새삼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은 어느 시기에나 상존했다기보다는 7세기 중·후반이라는 독특한 시기에 한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충과 의라는 유가 윤리 덕목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 모형으로 평가하는 편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풍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가 윤리를 화랑들이 곡해하여 이런 결말을 야기했다기보다는, 최치원의 해석과는 다소 다른 층위의 충과 의를 화랑들이 실천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 3) 교(敎)와 교의 교섭 혹은 혼용

3교 가운데 2개 이상의 사상이 결합한 사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두루 나타나 있다. 일단 『삼국사기』·『열전』의 1/3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김유신』에서는 도가적 속성을 지닌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공은 나이 15세에 花郎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으니, 그 무리를 龍華香徒라고 불렀다. (중략: 17세의 노인이 중악 석굴에서 수련하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됨) “어른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존함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이 말하였다. “나는 일정하게 머무르는 곳이 없고 인연 따라 가고 머물며, 이름은 難勝이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두 번 절하고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어 여기 와서 만나는 바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옆드려 비오니 어른께서는 저의 정성을 애달피 여기시어 方術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고 여섯 일곱 번 하니 그제야 노인은 “그대는 어린 나이에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장한 일이 아닌가?” 하고, 이에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하였다.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일 의롭지 못한 일에 쓴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작별을 하였는데 2리쯤 갔을 때 쫓아가 바라보니, 보이지 않고 오직 산 위에 빛이 보일 뿐인데 오색 빛처럼 찬란하였다.<sup>29)</sup>

김유신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노인이 방술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도가적 속성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난승’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난승보살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김유신의 낭도를 ‘용화향도’라 한 것 또한 미륵신앙과 연관된 표현이다.<sup>30)</sup> 충성심이 반드시 유가 윤리에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유신의 활동기는 앞서 2)에서 살핀 극단적 충과 의가 횡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무신(武神)에 가까게 추앙받았던 김유신은 다른 화랑이나 낭도들처럼 극단적 죽음으로써 자신을

29) 『삼국사기』 권41, 『열전』 제1, 김유신 상(정구복 외, 앞의 책, 702~703쪽).

30) 그러나 불교적 명칭은 후대의 운색에 따른 것일 가능성 또한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동국여지승람』·『고령현』에 소개된 대가야 건국신화의 등장인물은 모두 차차 표기에 가까운 이름을 지녔는데, 오로지 ‘정견모주(正見母主)’만 불교식 이름을 갖게 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증명하는 대신, 어떤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유신이 유가만을 절대화하거나 극단적 충의를 표방하는 대신, 도가와 불가의 속성을 겸비하고 있었던 점이 이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승려 혜숙은 대중적 성격이 짙은 성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일반적인 승려 혹은 낭도와는 거리가 있다.<sup>31)</sup> 혜숙은 죽은 다음 한 짝의 짚신만 남겨두고 사라졌는데<sup>32)</sup>, 신선들의 시해(尸解) 과정과 유사하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었다거나, 자신의 살점과 고기를 바퀴치기하는 재주 등은 신선 설화에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승려와 신선의 형상이 결합한 사례는 혜숙이 낭도집단에서 수행했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유신과 혜숙은 모두 유가, 도가, 불가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상만을 교조화, 절대화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여러 사상의 온갖 신비한 요소들이 김유신과 혜숙이라는, 각각의 단일한 인물 형상을 통해 교섭,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행적은 풍류가 지닌 신비주의와 환상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유가의 김유신, 불가의 혜숙이 아닌 말 그대로의 풍류 그 자체를 구현했다고 할 만하다.

이를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비교해 보면, 일단 최치원의 도·불 관계 서술에는 신비, 환상과 관계된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차이는 최치원의 유·불·도는 각자가 병렬적으로 열거되었는 점이다. 풍류는 유가, 도가, 불가의 조합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들이 어우러져 뚜렷한 하나의 형상이나 상징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에 비하면 김유신과 혜숙은 유·불·도의 조합만이 아닌, 여러 사상을 혼용한 하나의 뚜렷한

31) 혜숙은 호세랑(好世郎)의 낭도로서 黃卷[호랑단의 명부였던 풍류황권의 줄임말]에 이름이 올랐다가 삭제된 인물이었다. 따라서 화랑단에 소속된 경험이 있었던 인물이다.

32) 『삼국유사』 제5 의해, 이혜동진(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1992, 292~293쪽).



인물 형상,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어느 쪽의 풍류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자의 차이가 곧 풍류 관념의 차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4) 예술론으로서 풍류의 본질

최치원이 구상한 풍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풍류는, 특히 가악 혹은 예술과 관련하여 거론되었을 때 현실 계와 초월계,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라에 있었던 예악의 흔적<sup>33)</sup>은 그러한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늘과 땅, 세계와 세계 사이의 조화는 남아있는 가장 오랜 향가인 <혜성가>에도 등장했던, 화랑단의 직능으로서 대표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조화 지향이 3교의 조화 나아가 ‘포함삼교’를 연상하는 한 단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수 3년 임진(692) 9월 7일에 효소왕은 대현 살찬의 아들 부례랑을 국선으로 삼았고, 낭도가 1천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상과는 더욱 친했다. 천수 4년 계사(693) 3월에 부례랑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금란으로 놀러갔다. 그런데, 북명(원산만)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말갈에게 사로잡혀 갔다. (낭도 안상이 홀로 말갈을 쫓아가고, 이 때 천존고에 있었던 神笛과 玄琴이 함께 사라졌다가, 5월 15일 다 함께 나타나서 지난 이야기를 해줌) 이에 스님은 신적을 둘로 쪼개고 우리 두 사람에게 각기 한 짝씩을 타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다 위로 날아서 순식간에 여기에 와 닿았습니다.” 이 일을 왕에게 황급히 보고했다. 왕은 무척 놀라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부례랑은 현금과 신적을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왕은 금은 그릇 다섯 개씩 두 벌, 각 50량과 마납가사 다섯 벌, 대초 3천 필, 말 1만 경을 백률사에 바쳐서 부치님의 은덕에 보답했다.<sup>34)</sup>

33) 김상현, 「신라삼보의 불교사상적 의미」, 『만파식적설화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55~105쪽.

만파식적은 문무왕과 김유신 이성(二聖)의 감응을 통해 나타난 보물로써 성왕이 소리로써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유가의 예악사상과 관련되었으며, 불가 중심이었던 종래의 국보인 신라 3보를 대체하였다.<sup>35)</sup> 그러나 예와 악의 직능이 현실적, 유가적 모습으로 실현되는 대신, 납치되었던 국선, 화랑을 구한다는 주술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둘로 쪼개져서 각각 한쪽씩 타고 바다를 날아가는 모습은 『삼국유사』 안에서도 유독 신비성이 짙은 장면이었다. 게다가 이런 신비로운 성과를 백률사와 관련된 부처님의 은덕으로 표현함으로써 불가까지 개입하고 있다.

요컨대 만파식적은 ① 유가적 예악으로서 종래의 종교적 상징물을 대체하면서, ② 화랑을 직접 구출하는 주술적 성격을 지녔으며 ③ 불가의 은덕이라는 배경 또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만파식적이야말로 ‘포함삼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춘 단일 소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도 최치원의 맥락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우선 유가적으로는 충효 대신에 예악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주술이 도가와 관계를 지닐 수는 있겠지만, 최치원이 제시했던 실천적 가르침은 이런 신비적인 것은 아니었다. 끝으로 불가의 은덕은 『삼국유사』에서 여러 차례 부연된 것이므로 최치원과 관계되었다고만 판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만파식적의 ‘포함삼교’는 오히려, 최치원이 강조했던 현실적, 윤리적 국면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예술적 ‘포함삼교’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선사』라는 책이 남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접화군생’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른 자료에서 두루 확인 가능한 것과는 달리, ‘포함삼교’는 「난랑비서」의 서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를

34) 『삼국유사』 제4 탑상, 백률사(박성봉·고경식 역, 앞의 책, 1992, 221~222쪽).

35) 김상현, 앞의 글, 97쪽. 성왕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가적 인식은 「만파식적」 본문 구절에 보인다.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교의 극단화 경향, 교와 교 사이의 교섭을 통해 만들어진 단일한 인물 형상, 가학과 예술을 통한 또 다른 의미의 포함삼교 등은 최치원의 서술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체로 있던 풍류의 여러 층위와 실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풍류의 기원에 대한 유가와 불가 중심의 입장, 고유 신앙체로서 원화의 존재 등은 그 기원에 대한 신라인들의 일체화된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화랑의 행적과 신라 문화사의 자취 자체를 더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 4. 맺음말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신라 화랑의 사상적 토양이었던 풍류가 ‘포함삼교’의 의미를 지니며 ‘접화군생’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접화군생’의 역할은 『삼국사기』·『신라본기』·『진흥왕』 37년 조의 기록 전체와도 상통하며, 인재를 찾아 양성하는 화랑단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에 비해 ‘포함삼교’는 현존 자료 가운데 『난랑비서』에서만 확인되는 용어이다. 그런데 최치원의 『난랑비서』가 이루어진 시기보다 앞서, 화랑단 설립 시기에 명주에 세웠던 비문에서는 유가 사상의 시각과 용어만을 통해 화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9세기 최치원이 생각했던 ‘포함삼교’와, 7세기 명주 비문의 유가 중심적 태도에는 거리가 있다.

‘포함삼교’와 유가 중심이라는, 이들의 차이를 유념하면서 풍류의 실천에 해당하는 화랑단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여러 자료에서 풍류의 기능으로 나타났던 ‘유오산수’를 통한 인재 발굴은 ‘접화군생’의 역할과 통하는 국면이 있었다. 이들 사례는 유가, 도가, 불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치원의 풍류 관념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랑의 활동 가운데 유가 윤리를 극단 화하여 비장한 죽음에 집착했던 모습, 그리고 교와 교의 단순 대응을 넘어선 혼용을 시도했던 점 등은 『난랑비서』와 그 맥락은 같더라도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다. 한편 가악과 예술의 바탕으로서 풍류의 역할은 다른 자료에서의 비중과는 달리 최치원의 설명에서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치원과는 다른 맥락에서 ‘포함삼교’를 실현하고 있었다.

최치원의 풍류 관념은 풍류의 유일한 실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다채로웠던 풍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일부를 그 나름의 시각에 따라 정리한 것이었다. 그의 풍류 관념은 신비주의를 벗어난 윤리,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유가뿐만 아니라 도가, 불가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려 했다. 이는 화랑단의 행적에 나타난 풍류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박성봉·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2, 127~383쪽.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84~814쪽
- 권오만·고재희, 『한국 전통문화상 풍류활동의 전개』, 『선도문화』 17-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4, 381~414쪽.
- 김상현, 『신라삼보의 불교사상적 의미』, 『만파식적설화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55~105쪽.
- 김영태, 『승려낭도고-화랑도와 불교와의 관계』, 『불교학보』 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0, 255~274쪽.
- 김정철, 『풍류정신』, 영남대 출판부, 2009(초판: 정음사, 1986), 1~445쪽.
- 김충열, 『김충열교수의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1994, 1~174쪽.
- 김홍규, 『정복자와 수호자 - 5~7세기 한국사의 왕립 금석문과 왕권의 수사』,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013, 358~382쪽
- 류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66~87쪽.
- 서철원, 『향가의 제재로서 화랑 형상의 문학사적 의미』,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93~97쪽.
- 양근석, 『한민족의 풍류도와 화랑사상 연구』, 『국민윤리연구』 38,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 79~96쪽.
- 윤영옥, 『풍류사상과 한국시가-신라의 풍류적 인간상』, 『정여윤영옥박사학술총서 10: 작가·작품론 편』, 민속원, 2011, 182~225쪽
- 張伯偉, 『花郎道與魏晉風流關係之探討』, 『동방한문학』 13, 동방한문학회, 1997, 177~179쪽.
-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291~322쪽.
-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1, 한민족문화학회, 1996, 217~256쪽.

ABSTRACT

Choi Chi-won's Concept of Poongryoo  
and Its Context in History of Culture

Seo, Cheol-won

Choi Chi-won(崔致遠) explained that Poonyoo(風流) is composed of Confucianism, Taoist, and Buddhism. The description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search of ancient Korean culture. However, there was some records more than before. There are many stories associated with one or several of them in Samgooksagi(三國史記) and Samgookyosa(三國遺事). They have themes that differs from those of Choi Chi-won's. That stories about Taoist and Buddhism are mysterious, but Choi Chi-won prefer practicality to mystery. So he emphasized the practicality of Taoist and Buddhism, not fall behind Confucianism. His concept is not that all of the Poongyoo itself, but show that all of the practicality of the several ideas.

**Key Words** Choi Chi-won, Poongyoo, Nallangbiseo, Hwarang, Silla, ancient Korean culture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6  
게재확정일 : 2015. 12. 10